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8월 18일(금)  
(음력 6월 27일)

Пятница

18 августа 2017 г.

№ 32(11674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990년대 초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광복절 기념행사. <영예>광장 생화에 헌화하기 위해 행하는 사할린 동포들. (본사 사진첩에서)

## 단신

### 사할린과 쿠릴에서 연송어 1만6200여 톤 어획

8월 15일 현재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의 연송어 어획량은 1만6230톤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 계획량의 24.4% 정도이다.

사할린주 수산청의 정보에 따르면 성어기 시작부터 사할린과 쿠릴 섬들에서 어획량은 송어 1만1639톤, 연어 2764.9톤, 네르카 1479.9톤과 키주츠 345.9톤에 달했다.

현재 송어 어획량으로는 오하와 쿠릴 구역 업체들이 앞서고 있다. 오하 업체들의 총 어획량은 3614톤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주 서북쪽에는 연송어가 잘 유입되지 않았다. 이투루프에는 이번 주에 송어잡이가 잘 진행되고 있어 하루에 약 300톤의 어획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지역 송어 어획량은 2285톤에 달했다. 북쿠릴은 네르카와 키주츠의 집약적 어획이 허락되어 있고 지역에 배당된 연어 어획량도 훨씬 많다.

성어기 동안 사할린과 쿠릴에서 연송어 어획 허가량은 총 6만6555톤임을 상기시킨다.

### 돌린스크 시민, 임대아파트 입주식

돌린스크에 두 번째 임대아파트가 준공되어 시민 60명이 입주하게 되었다. 이번 주초에는 옥짜브리스크야 거리에 위치한 5층 임대주택 입주식이 거행되었다. 아파트의 임대료는 평균가격보다 50% 저렴하고 사회 복지시설이 잘 구축되어 학교나 도심 병원과 스키단지외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에 옵션으로 배치된 현대적 가구들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2년간 사할린금융거래청(주택 담보대출)은 임대아파트 16동(포로나이스크, 홈스크, 아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네웰스크, 스미르니호, 티몹스코예, 코르사코브와 돌린스크)을 준공하여 500여 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에서는 앞으로 총 4만 5000 가구가 입주할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입주 후, 반 년 후에 집을 구매할 경우 옵션 가구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올 9월, 제4회 사할린 국제 군악오케스트라 축제 개최

<사할린에 스파스카야 답> 제4회 국제 군악오케스트라 축제가 올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사할린주 형성 70주년 기념 이번 행사에는 11개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500여 명의 연주자와 아티스트들이 참가할 계획이다. 참가하는 오케스트라 중에는 러시아연방 북방부 소속 중앙 군사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크레믈린 사령관 소속 대통령오케스트라, 중국 여성취주오케스트라 등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캄차트카, 블라고웨센스크, 하바롭스크, 예카체린부르크 군사오케스트라들도 사할린 군악축제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서 사할린을 언급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 중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사할린이란 단어와 강제동원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제야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전망하게 되고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아래에 이와 관련 경축사 내용의 일부를 게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주말, 사할린에서 주요 행사 펼쳐져

**8월 19일(토)** 오전 11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사할린 한인동포들에게 주요 명절인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복절 72주년,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개막식에는 사할린주정부·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관계자, 사회활동가, 민족단체 대표, 외교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막식을 앞두고 오전 10시에 <슬라와(영예)>광장에서는 남부사할린·쿠릴열도 해방자 기념비에 헌화식이 있다.

이날 광복절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중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공연, 무술시범, 스포츠경기, 오락놀이, 씨름, 노래자랑 등)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행사 주최 측인 사할린주한인회에서 전했다. 특히 이번 공연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대사인 리리가 사할린을 방문하여 공연 무대를 빛내 줄 것이라 전해졌다.

**8월 20일(일)** 오후 4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 콩그레스홀에서 한·러 수교 27주년 기념 2017 사할린 한·러 우호 축제가 개최된다.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주최로 진행할 이 행사에는 한국에서 이름난 솔리스트로 베이스에 이연성, 소프라노에 박성희, (사)한울림(김덕수패 사물놀이), 부산 최고의 스트리트 댄스팀 <Ballast street>, 서울 국립전통예술헬고 팀들과 함께 사할린의 <디베르찌스멘트> 앙상블과 <에트노스> 예술학교 학생들이 출연한다. 소식이 입소문과 전단지로 주민들 가운데 알려지면서 훌륭한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멋진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엔 4회를 맞이하는 대규모 '사할린 한·러 우호축제'는 언제나 사할린한인동포사회에서 크나 큰 관심사로 기대와 환호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 동포 2세가 조국을 상대로 전달하는 메시지

사할린 한인 동포 2세 이체인 씨는 일제에 강제동원된 1세대이신 부모님의 한을 제대로 풀지 못한 억울함을 글로써 의사를 전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묻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부터 어머니는 한국에 나간다고 치마 저고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 리, 죽기 전에 내 조국 내 고향 한 번만 가봤으면...' 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까지 내 눈앞에 선합니다."라며 어머니의 한숨 어린 말을 이체인 씨는 되뇌었다. 이체인 씨 아버님의 고향은 경북 대구 동천이고 어머니 고향은 경북 대구 칠곡이다. 1990년 사촌 형님의 초청으로 이체인 씨는 아버지와 함께 처음 한국을 방문하여 생각도 못했던 조국 땅을 밟게되자 감정이 북받쳐 이리저리한 생각에 깊이 잠겼다고 했다.

"나라가 자기 백성이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버려진 후 일본에게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할린 한인 1세대 중 일본인이 빨아 먹다가 던져버린 청어 대가리를 주워먹고 배탈이 났다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나는 나라가 있어버린 존재가 아니요. 나는 조선인의 피로 태어난, 민족의 자존심이 강한 조선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는 역사의 정의 복권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므로 과거 지나간 죄는 용서하는 것이 그 하나고, 한국 정부가 우리 같은 한인들을 아무 특별한 조건 없이 한국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역사의 정의 복권이라 본다고 이체인씨는 방송을 통해 말했다.

이체인 씨는 광복절이 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한다. 그는 사할린 한인들의 1세대, 2세대의 문제를 주제로 한 아픈 마음을 담은 글을 짓는다. 아직도 반복되는 외침이지만 장기간 사할린 잔류 동포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데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 본다. 더군다나 1세대들만의 영주귀국은 최근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5년전에 귀국한, 현재 85-89세의 어르신들 일부가 사할린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다. 몸이 약해지고, 가

족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가족 없이 모국에서 외로이 지내야 하는 힘겨움 때문이다. 한편 사할린으로 되돌아와서는 엘리베이터나 기반시설이 잘 안된 환경에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한국방송이라도 보자 하니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대변해 주듯 광복 72주년을 맞아 이체인 씨는 또 하나 글을 본사에 투고했다. 이 글을 그는 광복절 하루 전날 8월 14일 완성했다고 한다.

아래에 그 기고문을 올린다.

(배순신기자)

## 한국이며, 답을 해보라!

오늘 부르려나, 내일 부르려나. 50년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리운 고향, 조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 형제. 20세기 중반 한국사를 연구해 보면 누구의 죄로 우리의 부모들이 그리운 조국을 가보지 못하고 낯선 타국에서 돌아가지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역사적 정의를 회복해 볼 수는 있으나 돌아간 어제를 오늘로 되돌릴 수는 없다.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도 답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의 문제를 민족적 비극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한국의 교류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88 올림픽 이후다. 나라가 잘 살게 되어 88 국제 올림픽을 한국이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다. 그만큼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 나라가 힘이 없던 70년 전에 잊었던 자기 백성을 1945년 이전과 그 이후로 태생 시기를 구분하여 데려가는가? 수감만 보이지 않을 뿐 한편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할린 한인 1세대라는 영주귀국의 조건은 올바른 정신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이산가족은 강제적 조치가 만든 조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선인에게 불리했겠으나 답은 명확했다. 그 답은 간단하다. 죽고자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일본 제국을 위해 하루라도 더 애를 쓰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조국이 만든 사할린 한인 이산가족의 귀환 조건,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의 대통령께 그 조건을 해석해 달라고 질의하고 싶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자기 민족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데려가고자 했다. 외국인과의 결혼한 이들까지 귀환을 시켰고, 그리하여 어머니가 일본 여성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 한국인인 자식도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은 자기 민족을 찾지 않았고 또 오늘날까지 사할린 땅의 한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전쟁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 자유로운 시대에 무슨 이유로 부모형제를 생이별시키고 있는가,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은 답을 해 보라!

1세대와 2세대로 나눈다는 것은 곧 부모와 아들딸, 손자 손녀 사이에 제한선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그런대로 좋은 오늘날, 그 제한선은 그럭저럭 참을 만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태평양 지역의 현 정치상황을 보고 있다면 한러 관계가 늘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갖게 된다.

살아본 경험이 있는 우리는 그 혹독한 세월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소련에서 자랄 때는 비자를 받고 탑승권을 구매하여 한국의 친척을 방문하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의 부모들은 한국의 라디오 방송조차 들어볼 수가 없었다. 전파조차 국경을 넘기 어려운 그 시절이 우리의 기억에는 여전히 생생하다.

향후 한러 간의 관계가 경색된다면, 그때 현 세대의 제한선은 남북의 38선과 별 다르지 않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는 민족적 비극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사할린에 남아 있는 2세대에게 조국이 있고 어려울 때에 조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자라나는 3-4세대도 애국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도 힘이 될 수 있다. 지금 2세대가 제한선에 걸려 한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2세대의 가운데서 조국과 연결되는 선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에게 가까운 조국이 멀어진다는 의미다. 그리되면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이것이 민족의 비극이요 아픔이다. 같은 민족의 아픔을 알아주시길!

우리는 한국이 앞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할린 한인의 1세, 2세, 3세대로 나누지 말고 같은 백성으로 자유롭게 받아주는 민주주의 조국하기를 희망한다.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에서 결혼의 상대를 찾지 마시고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는 한민족을 불러 자존심이 강한 한민족을 만들어야 더 통일된 나라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연세가 드신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계시니 이러한 부탁을 한국 정치인들께 드리는 것이다.

1세대들에게만 영주귀국 자격을 부여해 귀국을 시키고 나니 지금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할린에 사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다. 안산시와 다른 곳에서 인간적으로 무섭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25년 전에 귀국한 1세대들의 연세는 당시 60-70세였다. 아직은 홀로 움직이며 걸어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오늘 이 분들의 연세는 이제 85-95세가 되었다. 그 연세로는 혼자 일어나기도 버겁다. 게다가 자주 병고를 경험하는 나이가 아닌가. 혼자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시자 해도 물을 가져다 줄 이가 없다. 좀 도와 달라고 불러보려 해도 부를 사람조차 없다. 옆집 이웃을 부르려 해도 이웃사람의 형편은 더 비참하다. 이것은 도덕적이며 인도적인 문제이다.

조국으로 귀국하셨던 1세대들은 이러한 사정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한국의 체면이다. 어떤 못된 놈이 우리의 부모 형제를 이런 식으로 귀환시켰는지 답이 있어야 한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한국 정부, 70여 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못하는 정부.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죄가 아닌가? 한국은 답해 보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문제로 사할린 한인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무거워질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질수록 해결점을 찾을 길도 복잡해질 것이 분명하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고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부모들께서 받지 못한 국적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버려 나뭇잎처럼 바람에 굴러다니는 찌꺼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사랑받는 조국이 있고, 우리는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백성이라고 믿고 끝까지 서있을 것이다.

2017년 8월 1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이체인

## 이모저모

### <녹색 섬>여름 캠프학교 열려

8월 17일 <사할린 아르텍> 야외 스포츠 관광캠프장에서 <녹색 섬>여름 캠프학교가 열렸다.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수업에 사할린주 내 11개 구역에서 온 학생 63명이 참가하는데 이들 중 40명은 <녹색 섬> 주 통신 자연생태학교 학생들이다.

프로그램에는 자연생태교육에 여러 방면의 세션 작업을 포함해 공작교실과 기획 사전논의, 주제별 견학과 현장실습, 생태보호활동,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수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사할린국립대학교와 전문관청의 전문가들이 초대되었다. <녹색 섬>여름 캠프학교 결과는 8월 28일 개최될 폐막식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주 학교외교육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 Открылась летняя смена лагеря "Зеленый остров"

17 августа на базе загородного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ий Артек" состоялась открытие летнего лагеря-школы "Зеленый остров". Смена продлится до 29 августа.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63 школьника из 11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них 40 человек являются обучающимися областной очно-заоч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школы "Зеленый остров".

В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ена работа секц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предзащита проектов, тематические экскурсии и полевая практика, провед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кций, а также досугов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смены приглашены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Итоги летнего лагеря-школы "Зеленый остров"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28 август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закрытии смен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을 사할린주의 <자랑거리> 선정에 초대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찌>출판사가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 아래 사할린주 형성 70주년기념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호작용 기획 <자랑거리>를 추진한다.

별도로 인터넷 사이트 <http://gordost.sakhalin.gov.ru>를 개설해 주민들의 여러 제안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되는 소재들은 지방자치체에서만 아니라 사할린 전 지역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각 지역의 사건, 현상, 자연·문화·사회 대상들에 대한 것들이다.

첫 단계는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자치체 범주에서 몇 부문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대상을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이 선택해 줄 것을 제안한다. 제2 단계(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에서는 지방자치체 단계에서 올라온 우승자들이 사할린주의 <자랑거리>라는 호칭을 부칠 만한 승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주어진 대상들을 선정할 뿐만 아니라 새 대상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이메일 [gavrikova@yuzhno-sakhu.ru](mailto:gavrikova@yuzhno-sakhu.ru)로 또는 <자랑거리>프로젝트를 표시하여 페이스북 그룹 <유즈노사할린스크시> (<https://www.facebook.com/yuzhnosakhalinsk/>)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사이트에 올리지 않은 재미있는 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추가 부문으로 오르게 된다. 이 기획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직접적인 참여 속에 사할린주의 지역적, 역사적, 사회경제적 특징과 주와 주민들의 업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통합하는 인터넷 수단을 만드는 데 있다.

###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выбрать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пустил масштабный интерактивный проект «Гордость»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70-летия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ом сайте <http://gordost.sakhalin.gov.ru> собраны предложени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разных местах, событиях, явлениях, при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ах, которые, по их мнению,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ми и значимыми как для отдельн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 и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8면에 계속)

# 사할린 이중징용 광부 영령들 추념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위치한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피해자비가 제막된 지 10주년이 된다.

이 추모비는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서진길 회장의 발기로 서진길 회장을 비롯해 그를 응원하는 분들의 모금으로 세워졌다.

이중징용을 당한 부친을 그리워하는 서 회장은 생사불명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일본도 다녀오고 많은 문서도 연구해보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그는 8월 11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모인 동포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이날 추념제에는 사할린 주정부 이성철 행정 부실장,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을 비롯해 동포 1, 2, 3, 4 세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인문화센터 강당실에 들어가자마자 루고위에 제30중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행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림의 주제는 강제동원 시기, 차세대가 기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서진길 회장은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사람 중 1944년에 일본으로 약 3190명이 이중징용을 당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들 대다수의 가족은 일본으로 따라가지 못해 생이별했다.

이날 서진길 회장은 한국

외교부 강경화 장관, 일본 외무성 장관 앞으로 호소문을 보내자는 의견을 모았다. 서 회장이 낭독한 요망서 내용에는 일본이 이중징용자 명단



을 밝히는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 이중징용자들의 연고자들을 찾는 것 등, 이 외에 여러 요구가 들어있다. 사할린주한인회 회장과 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회장이 서명할 요망서라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회의 참가자들의 제안을 수집한 후 일본과 한국 외교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서진길 회장의 손녀들이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이중징용 광부 영령들에 대한 시 낭송은 감동적이었다.

사할린 이중 징용광부, 유족들 차마 눈감지 못한 님들이시어! 일제의 잔악한 침략전쟁의 그늘 아래 꽃같이 고운 청춘은

굴욕과 고난으로 상처받은 채 이국만리 낯선 이곳에서 조국과 혈육을 사모하여 죽어간 가없는 영령들이시어! 아! 편히 잠드소서...

한 많은 피와 눈물은 바다에 띄우고 찢겨진 뼈와 살은 바람과 어울려 한 많은 시절을 거슬러 꿈에서도 그리던 조국과 만나소서...

발표 부분이 끝나자 행사 참가자 모두가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으로 이동해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피해자비에 제사상을 올리고 헌화했다. (취재: 배순신기자)

# 사.할.린.

##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계속)

첫째, 그들은 일제 식민 지배의 명백한 피해자다

식민지로 전락한 당시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곤궁했다.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겼고 양반층은 몰락했다. 굶주림과 가난을 견딜 수 없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가깝게는 간도와 연해주와 일본, 멀리는 하와이와 남미까지 갔다.

조선인들이 이렇듯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일제는 화태(남사할린) 개발을 위해 조선인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쳤고, 일단 사할린으로 건너온 이들에게 연고모집을 강제해 가족과 친지, 같은 고향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 정책과 남사할린 점령지 정책과 맞물려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단지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서 시행된 강제동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것은 사할린 한인 문제를 대단히 협소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그들은 가족 해체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사할린 한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은, 그들이 가족 해체의 아픔을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집안의 가장, 혹은 아들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사할린으로 떠나간 이들은 50년 가까이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이산의 고통은 그들 모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할린에 홀로 남은 홀아비들은 술과 아편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고, 혹자는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할린 1세대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다, 끝내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땅을 보지 못한 채 한 줌 먼지로 사라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1944년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이중징용으로 사할린에서 꾸린 가족과 또 다시 이별해야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 그들의 원혼을 과연 무엇으로 달래줄 수 있을까.

또한 이중징용으로 가장을 떠나보내고 사할린에 남은 가족들은 그들대로 혹독한 시련을 경험해야 했다. 소련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일제 식민지 출신 조선인들은 환영받지 못했고, 그런 환경에서 가장 없이 생계를 꾸려간다는 자체가 고난이었으며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들은 오랜 시간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셋째, 그들은 한반도의 아픔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다

사할린 한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일제 식민 지배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분단과 냉전체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사할린의 지배 권력이 일본에서 소련으로 바뀐 동시에 남한에는 반공 반소를 전면에 내세운 미군정과 친미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그들은 한마디로 움푹달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소련 정부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한인의 마음조차 공산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탄압했고, 남북한 정권은 서로 체제 경쟁과 반목만 일삼느라 자국민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과 소련,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과 이해 속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사할린 한인들은 이용만 당하고 내쳐짐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재건한 재외동포다

그리고 보면 이중, 삼중고를 겪은 피해자면서도 사할린 현지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당당히 살아남은 한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 점에서 나는 '사할린 한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굳건히 이겨낸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무국적을 고수하다 생을 마감한 한인 1세는 물론이고, 민족과 인종 차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북한과 소련 국적을 취득하며 고군분투해온 2세와, 뒷세대와 달리 지나간 역사보다는 한류 열풍에 열광하는 3세와 4세까지도 모두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라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힘겨운 상황에서도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삶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간 것만으로도, 그들은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지난 70년 간 전 생애에 걸쳐 국가란 무엇이고 동포란 무엇인가를 줄기차게 묻고 또 물어온 그들에게,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 것이다.

(계속)

# 릿츠런파크 서울을 울린 "아리랑"

## 러시아 사할린 청소년 주립 오케스트라 연주회 열려

광복절을 앞두고 릿츠런파크 서울에서 특별한 합동 무대 공연이 열렸다.

한국마사회는 8월 12일 제9경주 직후 릿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앞 시상대에서 11명의 러시아 사할린 주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9일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KYDO: Korea Young Dream Orchestra, 총감독 금난새) 합동 연주회에 러시아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초청되면서 성사됐다.

'러시아 사할린 주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이날 릿츠런파크 서울을 방문한 약 3만 명 이상의 고객 앞에서 러시아 민요 및 우리나라 아리랑 등 4곡을 연주하며 감동과 큰 울림을 선사했다.

KYDO는 농어촌 청소년에게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매개로 '책임과 질서',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배양하도록 해 농어촌 청소년의



▲ 8월 12일 제9경주 직후 릿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앞 시상대에서 러시아 사할린 주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열렸다.

(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홍보부)

육성과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코자 설립됐다. 금난새 감독을 총감독으로 정기 합동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해외를 방문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말산업 저널)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Во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ванов Хёнджона (1649–1659) и его сына Хёнджона (1659–1674) партия Запада, которая посадила на трон Инджо, еще более усилилась. Самым влиятельным чиновником при дворе стал лидер партии Запада, известный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ий философ Сон Сирель.

Сон Сирель (также известный как Уам или Сонджа, 1607–1689) – коре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эт, философ, каллиграф, последователь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ой философии.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 это вся совокупность конфуцианских учений, созданных после XI в.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бычно является интеграцией в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нфуцианство элементов даосизма и буддизма. Сон Сирель был также известен своим вниманием к проблемам простых людей.

Несмотря на доминирование партии Запада, партия Юга активно боролась против их доминирования. После кончины вана Инджо разгорелся спор вокруг церемониального вопроса – в какую по рангу одежду должна нарядиться вторая жена покойного. Этот вопрос был каверзным, поскольку она являлась матерью нового короля. Тогда партия Юга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Позже, в 1674 г., после смерти Хёнджона, та же проблема возникла при короновании принца Сукчона – его мать была простой фрейлиной. Тут снова Юг взял верх, хотя в обоих случаях перехватить реальную власть у Запада им не удалось.

Однако и партия Запада также не была монолитной партией. Внутри нее возникли разногласия, значительная группа (в основном молодые) откололась и образовала свою партию «сорон» (молодые), в противовес «норон» (старые). Норон долго еще управляла страной, однако это стало началом зарождения семейно-клановых группировок янбан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ого или иного клана, захватив реальную власть в стране, выдвигали сво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 высок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осты путем подкупа 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систем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ов. Таков был результат прихода саримов (неоконфуцианцев) к в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асть саримов, перед которыми закрылась дорога к дальнейш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карьере, вернулась в родные места и стала основывать новые конфуцианские совоны (школы-храмы) с библиотеками, проводила жизнь в уединении, вдали от шумной столицы. Только при вана Сукчоне (1674–1720)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около 300 новых совонов. Ученые, обладавшие знаниями и не имевшие чиновничьих должностей, составили местные конфуцианские общества. Часть из них затем получи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олжности в академии Сонгюнгван.

Сон Сирель даже смог обосновать то сложное положение, с которым корейская элита не хотела мириться –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вассалитета перед Цинской (Маньчжурской) империей, которая к тому времени уничтожила династию Мин и полностью контролировала Китай. Формально Корея подчинялась могущественному соседу, корейские воинс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даж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столкновениях с первыми отрядами русских казаков-землепроходцев (с которыми боролись китайцы). Однако, в целом ориентация на Китай как сюзерена, стала носить более форм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корейская элита решила, что истинное конфуцианское наследие сохранилось только в Корею, и намеренно ревностно блюли церемониал и форму минской династии. Сон Си Рель обосновал тезис,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со времени падения минской династии, Корея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малый Китай» и потому должна сохранять его наследие. Конфуцианские неоконсерваторы конца XIX в. (Ли Хан Но, Чхве Ик Хён и другие) даже датировали свои послания трону по годам правления последнего императора династии Мин, высказывая тем самым неприятие маньчжу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цы гордились тем, что они «китайцы больше, чем сами китайцы».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 СЕМИНАР НА ХОККАЙД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О И МУЗЕИ»

9 август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Хоккайдо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который ставил своей целью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Название семинара –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о и музеи». Семинар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Медиа и туризм»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ккайдо «Роль музеев как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объект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медиума в жизни региона».

С первым докладом выступила доцент Масуда Норико с докладом «Искусство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ции – расцвет исторической живописи в Испании XIX в.». На пример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артин, изображающих исторические личности и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 Масуда показала, каким образом жители Испании формируют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на основ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даже тех,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у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дискуссии).

Доцент Фудзино Йохэй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Образ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музеи – на примере экспозиции Тайванского музе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Музея исто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армии». В докладе он показал, как в музеях Тайваня отображают историю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влия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образы истории. К примеру,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стровом показывается в музеях достаточно толерантно, в отличие от музеев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Китая.

Ассистент профессора Светлана Пайчадзе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Выражение идеи «формирования единой нации» и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музейных экспози-

циях». В докладе С. Пайчадзе сравнила музейные выставки и экспозиции по истории японцев 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в различных музеях –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и музее города Инчхона, а также отображение мультиэтнического образ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амятниках Сахалина.

Юлия Дин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Работа над выставкой по истории япо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в Сахалинск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планы и итоги», в котором рассказала об осуществляемом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проекте по истории япо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45–1964 гг. Ю. Дин рассказала, как продвигается работа над исследованием и указала на то, чт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несмотря на его несомненн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и интерес к нему со стороны ученых и публики. Ни японские или корейские меценаты, н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а так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учные программы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не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я финансировать проект. Проблема кроется в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ях – ни одна сторона не готова финансировать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й проект в связи с разными взглядами на об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прошлое.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единственным, кто может взять на себ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 это Россия и росси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руктуры (музеи). В результате один из этап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ставк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 приурочен к 7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Ю. Дин также отмети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обращ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к официальным документам и архивным материалам, но и к источникам не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раза – интервью старожилов, материалы их личных, семейных архиво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учителей и учеников япо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очень важна в свете того, что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не всегда могут дать достаточно полное и объективное знание о прошлом. Докладчик привела в этой связи пример – когда в 1963 г.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были закрыты, причина их закрытия не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ясно и четко обозначен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окументах (в отчетах ссылались на нехватку учебников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учителей), а корей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до сих пор обвиняет в закрыти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непродуманную политику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якобы, решил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корен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днако, воспоминания некоторых старожилов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закрытие школ были инициировано самими корейцами (родителями и учениками), поскольку обуч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рекрывало возможности многих дете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бучени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интеграции в советское общество. Школы были закрыты в том числе и потому, что к началу 1960-х гг. уже не помогали корейцам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а скорее мешали им в этой адаптации.

Семинар прошел в теплой, друж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выразили глубокий интерес к данным темам,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Наш корр.)

### Короткой строкой

#### ОТДАЛИ ДАТЬ ПАМЯТИ ЖЕРТВАМ ДВОЙ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11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ККЦ) состоя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10-летию со дня установления мемориала шахтерам – жертвам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тали Общество «Двойная вербовка»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жде чем провести церемонию поминовения, в зале ККЦ состоялось небольшое собр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треб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правительствам Яп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Двойная вербовка» Со Дин Гир, по чьей инициативе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этот мемориал, напомнил участникам собрания, что в 1944 г. с Сахалина на работы на шахтах Японии было отправлено более 3000 корейцев. В их числе был и отец Со Дин Гира, могилу которого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отыскать в Японии.

В память о шахтерах, подвергшихся двой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сначала на Сахалин, затем на шахты Японии), были исполнены стихи на корейском,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А учащиеся средней школы №3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 Луговое) подготовили к этому дню выставку рисунков,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которой ста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память о предках.

В этот день пришедшие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жертв – шахтеров, подвергшихся двой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мемориалу и соверш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поклоны.

####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жегодно в третью субботу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ит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и Освобождению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В этом году он будет праздноваться 19-го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В программе концерт,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и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Сирым,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и т.д. Главным гвоздем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нет выступление поп-артиста ЛИЛ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лицом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енчхане.

####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ДРУЖБЫ РК И РОССИИ

20 август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ТДЦ СТОЛИЦА (Конгресс-холл)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дружб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В концер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артисты 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выступлениями оперных певцов И Ен Сон и Пак Сон Хи, группы самульнори «Уллим»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снователя самульнори Ким Док Су, коллективов школы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К, коллективов ДШИ «Этнос» (Сахалин), ансамбля уличного танца из Пусана, камерного ансамбля «Дивертисмент» (Сахалин).

Организатор фестива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ун Чжэ Ин: Второ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не будет

17 августа исполнилось 100 дней пребывания Мун Чжэ Ина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резиденции Чхонвадэ состоялась обширн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имерно 250 журналистов, и она транслировала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резидент заявил, что второй вой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 будет, несмотря на отсутствие обещаний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ограмм созд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из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ия на Север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если Пхеньян прекратит провокаци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получил твердые завер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США не предпринимать никаких действий во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без одобрения Сеула. Коснувшись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реформы,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референдум о внесении давно назревших изменений в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траны можно совместить с предстоящими в июне будущего года местными выборами. Он обещал не вводить цензуру СМИ, а возможное повышение налогов согласовать с народом.

##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С США встретился с военн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14 авгус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ША генерал корпус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Джозеф Данфорд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Ли Сун Чжином и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К Сон Ён Му. Они обсудили мер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охраняющей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е. Данфорд поздравил Сон Ён Му с назначением на пост главы оборо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указав, что в ходе своего турн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 посетит РК,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близким союзником США в регионе. Сон Ён Му поблагодарил Данфорда.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закрытом режиме. Помимо мер укреп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и обсудили программу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андно-штабных учений Ulchi Freedom Guardian, начало которых намечено на 21 августа.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удет управлять рисками, вытекающими и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управления рисками, вытекающими и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Ким Дон Ён, выступая 14 августа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иски начали оказывать влияние на мировые финансовые рынки. Министр пообещал проводить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мониторинг состоян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бизнеса в реальном секторе экономики,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и реакции внутренних рынков. Он обещал также непрерыв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финансовую устойчивость. Между тем, 14 августа главный индекс Корейской биржи KOSPI повысился на 14,51 пункта или 0,63%, составив 2334,22 пункта. В течение торговой сессии проданы акции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4 млрд долларов. Акции Samsung Electronics подорожали на 0,85%, SK Hynix – на 6,03%, Hyundai Motor – на 1,76%, Kia Motors – на 1,42%.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алюта немного подорожала, составив 1139,70 вон за доллар США.

## Японец передал РК материалы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Японски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Эидаи Хаяси переда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6 тыс. единиц различных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вопросу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В документах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японском городе Фукуока, где во время протектората Японии над Кореей было много угольных шахт, широко применялся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я в ужасающих условиях, многие решались на побег. В некоем трудовом журнале, заполненном в августе 1944 года, говорится, что из 1.900 шахтеров, привлечённых к работе принудительно, сбежали 1.125.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и об авариях,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ых гибли корейцы. Хаяси посвятил жизнь изучению этого вопроса, отдавая дань уважения своему отцу, который погиб, помогая корейцам. Среди материал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им, есть фотографии острова Хасима, гд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труд корейцев. На них видны сторожевые вышки, вдоль всего острова,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труда рабочих из Кореи. После анализа получ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ни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RKI)

##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 МИГРАЦИЯ И РЕПАТРИАЦИЯ ЧОСОНЧЖОК ИЗ КИТАЯ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в 1992 г.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остигло широких масштаб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ключая товарообмен, прямое инвестирование, туризм,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По китайской статистике, Корея стала пятым по величине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ором после США, Японии, Тайваня и Сингапура. Число посетивших Китай ю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 деловым и туристическим поездкам, также для учебы, стрем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в 1990-е годы, и в 2000 г. превысило 1 млн.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лся обратный поток визитеров из Китая в Корею и в 2001 г. число составило 482 тыс. человек.

Нормализац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в 1992 г. предостав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ездок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ервоначально разрешение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получили чосончжок, имевшие прям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могли пригласить и взять на себя все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поездкой. Со временем приглашать имели право не только кровные родные, но состоящие в двою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рок визы для посеще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граничен 90 днями.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численность чосончжок, занимавшихся уличной продажей китайских лекарств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8 тыс. человек. Власти Кореи ограничили въезд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днако ни ограничения, ни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контроль не смогли остановить поднявшуюся волну и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цы стали прибывать массами.

Для молодых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существовал легальный способ въезда в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стажеров. В августе 1994 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что оно вы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10 тыс. разрешений на стажировку в швей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на обувных фабриках, где ощущался особо острый дефицит в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ах. В 1995 г.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иглашении на стажировку еще 4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Однако проблема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не была решена, так как стажеры сбежали с отведенным им мест работы в поисках более высокой зарплаты. Как сообщила газета «Сеул Геральд» в 2002 г. из 89 тыс. стажеров 52 тыс. перешли в нелег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Как стажеры они получали 200-260 долл., а как нелегальные рабочие – около 500 долларов, что составляло около трети средне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Уход в нелег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означал потерю иностранными «гастарбайтерами» всех прав,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трахового полиса 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октябрь 2000 г. граждан КНР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153,930 человек (в это число включены и нелегалы). Примерно половина этих китайцев – чосончжок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Многие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цы использовали нелегальные пути въезда и платили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агентам и брокерам за фальшивые паспорта и подд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Многие пострадали от мошенничества некоторых ю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ли в Китай и обещали устроить на работу, учебу или подобрать партнера по браку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тем собир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суммы денег и исчезали с ними. При мошенничестве с фиктивным браком пострадавшими могут быть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 и чосончжок. Некоторые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цы справляют поддель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разводе, чтобы выйти замуж з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ужчин, которые оплачивают им приезд в Корею. Полу-

чив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они оставляли своих корейских мужей. По данным консульской службы в 1990-х годах ежегодно 6-7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бывало с Корею с целью замужеств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тмечалось мошенничество некотор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женихов», которые обещали китайским корейкам за деньги устроить брак или жениться самим на них. Получив деньги, они, как правило, пропадали.

Нелегальный трафик морем осуществлялся совместно китайски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дельцами. Многие судна задерживали еще в прибрежных водах Китая и только в 1995 г.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194 случая попытки вывоза корейских китайцев. В период январь-октябрь 2000 г., как сообщал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БиБиСи», только в южно-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Фуцзянь были задержаны 400 человек,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в трафике нелегалов морским путем.

Однако самые строгие меры не смогли остановить просачивание чосончжок в Корею, которые шли на сознательный риск, одалживая крупные суммы денег, чтобы оплат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трафика. Зачастую они еще в Китае оказываются в долговой кабале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ельцов, которые затем эксплуатируют нелегалов, вычитая из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оговоренную сумму.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нешняя схожесть и зна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обычаев и традиций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щает жизнь чосончжок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абочими мигранта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Однако, как отмечают исследователи, языковые 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различия,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изменившиеся со временем менталитет и образ жизни чосончжок и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стали настолько значительными, что мигранты испытывают большие затруднения и испытывают первоначально,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культурный шок» (“cultural shock”). Разница касается также языка, так как диалект, используемый чосончжок и современны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Южной Кореи имеют существенные отличия. Многи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являющиеся выходцами сельских местностей Китая, не знают город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адаптация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у них проходит гораздо сложнее.

Грубость, эксплуатация, задержки или отказ оплаты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вызывали протест у чосончжок. Со Чжи-Юнг, репортер газеты «Корея таймс» опубликовал целую серию статей о суицидах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бросавшихся под поезда, прыгнувших с высотных зданий и мостов, а также совершивших самоубийство. Иногда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давали своим жестоким работодателям неадекватный отпор, и одно из самых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произошло в 1996 г. на борту рыболовческого судна «Пескама». Шесть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выдержав постоянных издевательств и избиений капитаном и старших членов его команды, перебила 11 южнокорейцев, включая капитана.

Судьба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влекала внимание и вызывало сочувствие сред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траны, в особенности правозащитных, профсоюзных и религиоз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Корее действует сеть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бществ и движений,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нелегальным рабочим-иностранцам, включая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и проявляют заботу обо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корейских китайцах тоже.

Численность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е, включая пребывающих на законных основаниях и нелегалов, не поддается строгому учету, поэтому, в расхождении весьма значительны. Причем, официальные данные гораздо ниже, че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сведения, упоминаемые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иммиграция из материкового Китая возросла; 696 861 человек из КНР прибы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что составляет 55,1%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1 139 283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стране. Среди них 488,1 тыс. –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 чосончжок, что равно 70%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граждан КНР в Южной Корее и 40%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Большинство вновь прибывших живут в Сеуле и его окрестностях.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Кореи появляются или увеличиваются в размерах, имевшиеся ранее чайнатауны.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чествовали лучших спортивных деятелей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Спортивная эли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2016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накануне Дня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в колонном за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Обращая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собравшим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рида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недрению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егодня более 180 тысяч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занимают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 сказал он. - Свыше 14 тысяч ребят посещают детско-юношеские спортивные школы. В результате 30 островитян вошли в состав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страны. Мы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бьем рекорды по развитию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2016 году в строй введено более 20 объектов. В 2017 году запустим еще 24 сооружения. Все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спортивная отрасль на острова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Антон Зайцев вручил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а в нескольких номинациях. В частности, первым сред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в сфер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изнан Неве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Лучш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и спортивно-массовой работы стали: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ени заслуженного тренера РСФСР Эдуарда Комнацкого,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и Дворец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Среди тренеров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 Корсаков) Светлана Майорова,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г. Холмск) Артур Никитин,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о волейболу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г. Анива) Жанна Егорова.

Отдельную номинацию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посвятили сотрудникам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освещающим спортивные темы. Среди предстателей печатных и интернет-С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учшим признан корреспонден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Sakh.com Кирилл Ясько. Сред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первенство завоевала шеф-редактор программы «Вести. Спорт» ГТРК «Сахалин» Елена Женченко.

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спортивн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бедн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федерация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виду спорта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 работу завод готовой ед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цех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линие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мягких консервов состоялась в селе Красногорск. Производство созда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Огромный цех, принадлежащий предприятию «Красногорская заимка», состоит из 56 изолированных помещений. Здесь установлены холодильники, паровые автоклавы,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дефростации, лаборатория для изучения свойств продукции, а такж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линии: мясная, рыбная, овощная,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горячей продукции и упаковки.

- Благодаря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мы смогли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ю мечту. Нашу радость и гордость не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Подоб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ет на вс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отовим блюд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з овощей и мяса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немецкой технологии стерилизации бе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сервантов. Это борщ, рассольник, овощные супы, вторые блюда, салаты, каши и творожный пудинг. Только натуральная, домашняя еда, - рассказа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расногорской заимки» Валентина Баранска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трудится 34 человека. В основном жители Красногорска. Наталья Горбунова одна из них. Повар с многолетним стажем. Говорит, еще пару лет назад о так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мечтать не могла.

- Раньше делать те же самые котлеты приходилось вручную, от начала до конца, сейчас мне необходимо лишь положить мясо в автомат, все остальное делает машина, перемалывает продукт в фарш, формирует котлеты. Моя задача только пожарить. Таких котлет я за день легко делаю до тысячи штук,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Наталья Горбунова.

Вся продукция проходит усиленный контроль качества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Процесс изготовления -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После придания ингредиентам необходим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блюдо готовится в автоклавах по оригинальным рецептам. Затем готовая еда, пройдя через линию упаковки,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склад.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ягкие консервы попадут на

рынки и в магази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ланах - доставка готовой еды в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а в дальнейшем 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 На Сахалине мал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закупки вслед за крупными переводят на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ых торгов

Реги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где с этой целью в работу запущена биржевая площадка. Поставщикам он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о конкурировать, а заказчикам - выбирать оптима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исходя из цены и качества товаров.

Подобную практику помимо Сахалина внедряют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спублика Тыва. За основу взят опыт Татарстана. Все 4 региона используют общую биржевую площадку на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е: <http://bp.zakazrf.ru/>.

Новый алгоритм разработан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малых» закупок на суммы до 100 и (или)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областным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заказчикам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позволяет производить их у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Ранее его выбор мог основываться на субъективных факторах. Биржа же исключает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Согласно новому подходу контракты заключаютс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оргов на понижение цены на электронной площадке. Продукцию допускают к торговому процедуре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ее качества. А поставщики, признанные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ми, покидают биржу на трехлетний срок.

- Электрон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торгов уже получила 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оценок не только от заказчиков, но и от поставщ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отмечают ее открытость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лагать там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конкурентной основе. Для заказчиков выгод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получении проверенной и 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 оптимальным рыночным ценам. При этом сущ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экономятся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 сообщила Елена Иванова, министр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омство курирует данную работ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ахалинская биржевая площадка функционирует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на ней более 100 поставщиков,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ют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В их числе - островные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совхоз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Заречное», Поронайский молокозавод,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ООО «Агросервис». Всего проведено уже 18 процедур на общую сумму свыше 800 тысяч рублей.

Первыми заказчиками ст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учрежд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 орга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еще 4 -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ия торгов, к примеру, удалось снизить на треть закупочную стоимость мясной продукции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цена лота с говядиной уменьшилась с 96 до 66 тысяч рубле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закупочные процедуры по новой схеме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все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остепенно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номенклатура товаров -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помим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бирже представят лекарства.

**Победи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триатлона стал хабаровчанин Александр Доровских**  
Открыт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Охотского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водилось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Несмотря на мелкий дождь и прохла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натория-профилактория «Лесное озеро», где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стартовать и финишировать, собра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Популярность триатлона на Сахалине быстро растет. Ес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остяз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то в этот раз поступило вдвое больше заявок. Помериться силами решили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гост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из Белорусси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Австралии, Германии. На старт вместе с начинающими и опытн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вышли физкультурник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Участникам состязаний предстояло за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проплыть дистанцию в водах озера Тунайча. А затем - велогонка и забег.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няли все возможные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воде участников подстраховывали лодки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и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имени Полякова. На суше за ними неуклонно следовала машина «скорой помощи», еще одна дежурила в стартовом городке. На трассе, соединяющ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Охотское, где проходила часть состязаний, выставили

посты ГИБДД, временно ограничили скорость движения для автомобилей.

Первыми стартовали участники супермарафона. По сигналу судей самы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мужчины бросились в воду и быстро поплыли к бую,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в 375 метрах от берега. Этот отрезок и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четыре раза. А затем - велогонка на 42 километра и забег на 21 километр.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накал спортивных страстей и азарт борьбы нисколько не мешали проявлению лучших человеческих качеств. Зрители свои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спортсмен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А участники состязаний поддержи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помогая товарищам выйти из воды после утомительного заплыва.

Состязания продлились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ка финишную черту не пересек последний из участников. Победителем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тал Андрей Семикрас.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Михаил Тутенко. Третье разделили Денис Мусин и Михаил Черемисин.

Для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ве дистанции. Женский суперспринт - плавание на 300 метров, велогонка на восемь километров и двухкилометровый забег. Здесь первенствовала Мария Муратов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также завоевали жительниц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Светлана Кузьмина и Карина Глебова. Марафон, конечно же, труднее. Плавание - 750 метров, велогонка на 20 километров и бег на пять. Здесь первое место у житель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ктории Шпуневой, второе заняла - Кристина Зыкова из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А на третьем - гостя из Архангельска Ольга Митропольская.

По вол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истанция женского марафона оказалась идентичной мужскому спринту. В нем все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заняли уроженц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Евгений Валиев, далее Владимир Нестеров и Семен Суба.

Еще одна сугубо мужская дистанция - олимпийская. Плавание - 1500 метров, велогонка на 40 километров и десятикилометровый забег.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 Александр Яблочник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торое - у Дэвида Аллена из Сиднея (Австралия), третье занял Ден Де Ун из Хабаровска.

А на самой престижной дистанции - в супермарафоне - весь пьедестал почета заняли гости.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 хабаровчанин Александр Доровских. На втором - Николай Галанев из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Третье - у еще одного хабаровчанина Алексея Баркуна.

## Жильцы второго арендного дома в Долинске получили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на улице Октябрьской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Новоселами стали 60 семей - работник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Квартиры в пятиэтажке сданы под ключ с тремя вариантами планировки. Стоим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 этом доме на 50%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Аренда одно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ы составит 7000 рублей, двухкомнатной - 8000, трехкомнатной - 11000 рублей. Новостройка возведена вблиз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недалеко от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и лыжной базы.

Одному из новоселов Никите Грубнику через два дня исполнится 15 лет. Его семья долгие годы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переезжать с одной съемной квартиры на другую. Юноша говорит, что переезд в арендный дом - лучший подарок ко дню рождения.

- Мою радость не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Наконец у меня будет своя отдельная комната, а не одна на всех. Теперь я смогу спокойно готовиться к выпускным экзаменам, приглашать в гости друзей, слушать музыку, - делит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Никита.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программ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й подход в решении жилищных проблем, а также эффективный способ привлечь в регион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вартиры мы строим очень просторные, светлые, уютные, "под ключ". Людям останется только расставить мебель. Думаю, новоселам в таких квартирах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Всего Сахалинским ипотечным агентством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сдано уже 16 арендных домов: в Поронайске, Холмске, Анив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вельске, Смирных, Тымовском, Корсакове и Долинске. Новоселами стали более пятисот семей.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еще в сем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их числе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сего в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и заселить не менее 4,5 тысяч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Сахали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арендных домах не менее полугода, смогут выкупать свои квартиры, используя льготный ипотечный зае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Кандидат **Шевелева Наталья Юрьевна**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Кандидат **Кольин Олег Сергеевич**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Кандидат **Троян Павел Юрьевич**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ЛЫШАТЬ ЛЮДЕЙ, РАБОТАТЬ ДЛЯ ЛЮДЕЙ** ОКРУГ № 5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РГЕЙ БОНДАРЕВ** **САРГИС АКОПЯН**

### 한국 수산업체 관계자, 사할린방문

8월 15일-17일간 한국 노량진수산물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수산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대표 10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그린 팔라스 그룹> 박용광 대표의 초청으로 온 이들은 사할린 수산물 구입과 전자장매 수산물거래소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16일(수) 한국대표단은 사할린주정부 수산청 관계자와 동행하여 코르사코브 <유즈너 테르미날(남부 터미널)>항구 공사의 현장을 찾아 올해부터 개발에 들어간 물류센터, 냉동창고, 선박수리장 등을 돌아보았다. 또한 한국 손님들은 <솔리비요브카>수산물가공공장을 시찰하는 가운데 대표단 중 한 분이 바로 연송어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올해는 사할린 강들로 연송어의 유입이 잘 되지 않아 요구한 대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한편 사할린정부는 코르사코브 항구에서 최신형 물류센터를 만들고 조선업, 선박수리 등 제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했다. 현재 한국투자자들을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르세날>회사 천영근 회장은 연합회를 설립 중이다. 여기에 사할린주한인회도 들어갈 전망이다. 연합회는 사할린주정부와 협약협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순신기자)

### 재외동포재단, 고려인 정주 80주년 맞아 고려인 초등생 80명 초청, '한국어 집중캠프' 실시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을 맞아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초등학생 80명이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17일(목)부터 26일(토)까지 9박 10일간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고려인 청소년 초청 한국어 집중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재외동포 역사가 깊어지면서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고려인 동포 4·5세대들의 한국어 능력 배양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러시아·CIS 지역 4개국 초등학생 80명과 현지 인솔교사 11명 등 총 91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한국어 관련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재단은 참가자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현지 한글학교와 연계해 한국어 학습 지도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프는 한국어 수업, 문화체험, 체육대회, 그룹 프로젝트 등 놀이와 활동을 통해 실용 한국어를 습득하고 더불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막식에 참가한 후, 18일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동해 한지공예와 한옥 체험,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게 되었다.

또, 체육대회와 전통음식 만들어 먹기, SM타운 방문, 한글 골든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국을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 동포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며, "우리말 교육이 한민족 정체성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만큼 재단은 앞으로도 고려인 청소년들의 모국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함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포호에세이 공모전 공모



고려인 청년협회 'ЕТКО'는 고려인 청년의 문화적·정신적 가치에 대한 상호교류, 자신의 역사에 대한 관심 자극과 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포호에세이 공모전 **「고려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에세이 주제

• 나의 조상의 업적, 러시아 문화에 대한 고려인의 영향,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나의 역할

#### 참가 자격, 접수 방법

- 나이 16세~35세, 극동지역(사하공화국 제외) 거주 고려인 청년
- 2017.7.1 (토)~8.31(목) 이메일(etko.vl@mail.ru) 접수

**※ 제출하는 포호에세이는, 향후 언론 게재 및 책자 제작 등에 대한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에세이 작성 요령

- 페이지 규격 - A4용지, 페이지 방향 세로, 쪽 여백(상하좌우) 각각 2cm
  - 에세이 제목
    - 글꼴 : TimesNewRoman, 14포인트, 굵게, 가운데 정렬, 대문자, 아래한 칸 비움
  - 작가 성명(풀네임), 도시명
    - 글꼴 : TimesNewRoman, 14포인트, 굵게, 기울임, 가운데 정렬
  - 내용
    - 글꼴 : TimesNewRoman, 14포인트, 가운데 정렬, 첫 줄 들여쓰기 1.25cm,
    - 줄간격 1.5, 페이지 표시 없음
    - 최소 5페이지 이상(사진 제외), 문서 작성 프로그램 : MSWord(파일 확장자 \*.doc, \*.rtf)
  - 첨부사진 최소 5장, 모든 사진에 서명(워터마크) 필수
  - 러시아어, 한국어 사용 가능
  - 응모원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결과 발표 및 수상 내역**
- 2017.10.31(화), 1등 (\$1,000) 1명, 2등(\$700) 2명, 3등(\$500) 3명
  - 기타 문의사항은 장 나테즈다 고려인 청년협회 부회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7 (964) 443-10-90, etko.vl.mail.ru

### Программа

###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дьмого созыва.

Программа КПРФ на выборах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10 шагов к достойной жизни» отвечает вызовам современности и дает ответы, чем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коммунисты КПРФ, будучи избранными в состав орган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Партия выступает ЗА:

- Возвраще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общенарод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природных богатств (нефти, газа, земли, леса, цветных и других металлов), базо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организацию их эффе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людей, социальн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редполагающую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е право на труд и его должн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на доступное всем беспла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благоустроенное жилье, отдых, заботу о семье и людях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Социальное равенство, основанное на освобождении труда от эксплуатации человека человеком и от всех видов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азитизма;
- Патриотизм, уважение к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традициям страны, равноправие наций, дружбу народов, единство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начал;
-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гражданина перед обществом и общества перед гражданином, единство прав и обязанностей человека;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КПРФ, являясь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сторонниками добивается, и будет добиваться, чтобы в стран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жд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вышался уровень и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за счет снижения тарифов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налога на землю, созд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том числе:

- за хорошие дороги и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За экологическ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чистую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 з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разрушен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ддержку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 за ре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оступ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 за поддержк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крепления его базы, повышени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учителям, за беспла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ВУЗах и достойную стипендию;
- за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ежи в вопросах обеспечения жильем, обязательно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ыпускнико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оздание центров досуга, занятий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 за надежную защиту пенсионеров, инвалидов и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х граждан. За ежегодную индексацию пенсий, пособий и денежных выплат льготникам;

**Мы знаем, что и как надо сделать,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жизнь людей труда. У нас есть воля реализовать нашу Программу, есть четкое понимание того, как возродить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защитить людей от нищеты и произвола. ЗА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Голосуйте за КПРФ, номер 3 в избирательном бюллетене!**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 с 11 августа по 11 сентября -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агается в нескольких номинациях выбрать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е и значимые объекты в рамка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 с 12 сентября по 12 октября – за звание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бороться уже победител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Кроме того,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голосовать за уже имеющиеся объекты, но и предлагать новые.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можно направлять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a.gavrikova@yuzhno-sakh.ru, а также в группу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Facebook (<https://www.facebook.com/yuzhnosakhalinsk/>) с пометкой: «Проект «Гордость».

В случае появления интерес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не попадающих в существующие разделы сайта, будут появляться нов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оминации. Ведь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создать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нтернет-ресурс,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т материалы и информацию о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знаковых и интересных, по мнению граждан, краеведче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и достиж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его жителей.

## 사할린에서 <2017년 북방 여성>을 선발

2017년 8월 12-13일 양일간 세계원주민의 날 기념 일환으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마당에서 제3회 북방 원주민 여성대표자들의 <2017년 북방 여성>콩쿠르가 개최되었다.

8월 12일에 개최된 콩쿠르 프로그램에는 오하, 노글리키, 토티스코예, 스미르니호와 포로나이스크 구역들에서 20명의 소수민족의 원주민 여성 2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바느질, 요리, 모국어 구사하기, 창작글 콩쿠르에서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했다. 여왕관 미인 선발은 연령별 3그룹으로 나누어 경쟁한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우승으로 쿠클리크 엘레나(노글리키구역, 15-25세의 그룹), 펠니코와 안나(토티스코예구역, 25-50세의 연령그룹), 이와노와 율리야(토티스코예구역, 50세이상)를 선발했다. 콩쿠르 프로그램 외에도 러시아 각 지역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캄차트카, 추코트카, 알타이, 에벤키아, 야말) 민속단체들의 찬조로 멋진 무대가 펼쳐졌다.

8월 13일에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 러시아와 세계에서의 유기농업, 농촌경제 및 자연생태 관광, <슬로우 푸드(서두르지 않는 음식; 전통적 음식)> 국제 농산물식도락운동, 전통적인 자연이용 보존에 있어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권리와 식량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논제로 삼았다.

사할린에서 열린 세미나의 일환으로 <맛있고, 깨끗하고, 정직한 먹거리는 우리의 권리이자 미래다. 사할린이 시작한다!>라는 처음으로 콩쿠르프로젝트가 개최되었다. <청년들 사이에 맛 음식 수업>과 요리 시식도 진행되었다.

## На Сахалине выбрали «Северянку-2017»

12 и 13 августа 2017 года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ми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стоялся третий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еверянка — 2017».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12 августа, участвовали двадц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з Ох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и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Они показ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в умении шить, готовить, говорить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оказали таланты в авторском твор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Корону королевы красоты женщины разыгрывали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По решению жюр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Куклик Елена Евгеньевна, Ноглинский район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от 15 до 25 лет) Мельникова А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от 25 до 50 лет)

Иванова Юл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от 50 лет и старше)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дополнили замеч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Мурманска, Архангельска, Камчатки, Чукотки, Алтая, Эвенкии, Ямала.

13 авгус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шел семинар, затронувший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 экологическо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в России и мире;
-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и экологический туризм;
-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гро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Еда без спешки» Slow Food;
- основ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авах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на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семинара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конкурсный проект «Вкусная, чистая, честная еда — наше право и будущее. Стартует Сахалин!»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Урок по воспитанию вкуса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и дегустация блюд.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광복절 기념행사



2017년 8월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광복 72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명절 행사 프로그램:

10시-10시 30분 -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남부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예기념종합기념관에 헌화

11시 - 13시 -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광복 72주년 기념행사 개막, 공연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리리 강원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가 참가한다.

14시-17시 - 스포츠게임, 오락프로그램, 씨름, 춤, 대중놀이, 노래콩쿨.

### 광복절 기념행사조직위원회

19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тся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72-о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В программе:

10.00—возложение венк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11.00-13.00.—открытие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популярного певц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ЛИ.

14.00-17.00—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массовые гуляния.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